

치과내원환자의 감염관리에 관한 인식도 조사

이연경 · 김순덕¹

극동정보대학 치위생과, ¹마산대학 치위생과

About dentistry infection from dentistry medical institution recognition research of patient

Youn -Kyung Lee · Soon-Duck Kim¹

Dept. of Dental Hygiene, Keukdong College, ¹Dept. of Dental Hygiene, Masan College

ABSTRACT

Objectives : The research which sees collected information about dentistry infection management recognition of the patients and the infection management which the medical treatment consumer does in necessity is what, grasped and satisfaction and became the fundamental data which makes the hospital will be able to trust about dentistry image rise and dentistry environment of the medical treatment consumer who assists a dentistry character executed.

Methods : From 2009 April 1st until May 28th 233 people common people who have the experience which visits a Gyeongsangnam-do area dentistry the object with the entry question law which sleeps did and the data analysis SPSS, 12.0 For Window under using produced each question item by frequency and a ratio, the analytical degree of infection management One - Way ANOVA stamps and executed t-test.

Results : Information experience experienced about dentistry infection of the investigation object person to be, appeared with 74.7% and the after that dentistry assistance at the time of conduct change which experiences the answer back regarding of Former times attentively observes organization disinfecting' was most with 46.6%. The protective equipments wearing goal of the dentistry medical attendance appeared the dentistry medical attendance and patient protection 77.7%, dentistry medical attendance protection 12.9%, by patient protection 9.4% order. Before medical treatment starting of the dentistry medical attendance the hand Does not confirm ' appeared 72.1%, with, The hand washing, is whole and the degree which appears is high with 4.11 points the stamp. Is high there was a possibility of knowing the thing about the recording infection where the educational background will be high and considers statistically the difference which was visible

Conclusions : The education which is active and continuous is necessary about infection management and sets the guides which are standardized to the patients and about infection management and about infection prevention and exposes from dentistry practices well to emboss the thing is thought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plant a trust feeling about the dentistry where the patients assist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0 ; 10(4) : 617-625)

Key words : dentistry infection management, patient recogniti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색인 : 개인보호장구, 치과감염관리, 환자인식

1. 서론

치과병 · 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발치 등 치과적 조작의 대부분이 출혈성이며 외과 수술실과 같이 감염방지

를 위한 의료적 설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상적 진료환경에서 많은 기기를 이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혈액매개 전염병의 전파나 감염위험이 크다¹⁾. 여러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 중 치과 진료실은 광범위한 종류의 병원성

교신저자 : 이연경 우) 369-703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154-1 극동정보대학 치위생과

전화 : 043-879-3411, 010-2731-3822 Fax : 043-879-3411 E-mail : lyk0312@empal.com

접수일-2010년 7월 5일 수정일-2010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2010년 8월 25일

미생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²⁾ 혈액이나 혈액이 섞인 타액에 접촉하거나 치과기구나 장비 등에 의한 상처를 통한 감염이 가능하다. 또한 환자의 여러 가지 분비물로 인해 실내가 오염될 경우 감염의 매개 장소가 될 수도 있다³⁾. 이런 위험이 치과진료실내의 노출 되지 않은 곳에서부터 노출되는 곳까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지만 흔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과진료의 의료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비해 감염관리에 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4,5)}.

현대사회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과거에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에게 독점되었던 의료정보가 대중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소비자는 치료뿐만 아니라 진료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진료실 내의 감염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감염관리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자기안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수준이 높아져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일방적으로 행하는 감염관리 수준을 벗어나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염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⁶⁾.

실제로 2006년 한 방송사에서는 일부 치과에서 행해지는 부정적인 감염실태를 고발함으로써 인해 많은 대중들이 분노하였고 일부 치과의 부적절한 감염관리로 인해 치과의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하였다⁷⁾.

치과의원은 진료의 특성상 거의 모든 환자가 외래환자이며, 이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쉽게 이동할 가능성이 많은 집단이다⁸⁾. 그러므로 치과 의료서비스에서 기본이 되는 감염관리는 의료소비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 중의 하나이므로 치과 의료진은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측면에서 환자들이 치과감염관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요구하는 사항들을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실천할 때 이를 반영하고 개선한다면 병원의 차별성과 홍보에도 도움이 되어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연구되어온 의료공급자의 치과감염관리인식이 아닌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의 치과 감염관리 인식 즉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치과 내원 시 쉽게 접하는 손 씻기와 보호장구의 인식정도 등을 알아보고 의료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감염관리가 무엇인지

를 파악하여 치과병(의)원을 내원 하는 의료소비자의 치과 이미지 상승과 치과환경에 대한 만족과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데 기초자료가 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경남지역 치과병(의)원 진료실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임의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총 250부 중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한 233부를 유효한 자료로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설문지를 통하여 개별자기기입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지는 임⁹⁾의 설문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문항 8문항,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정보 경험 2문항, 감염 관리 인지도 5문항, 손 씻기에 대한 감염인지정도 5문항, 감염방지에 대한 보호장구 인지도 2문항, 치과감염인지도 5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감염방지에 대한 보호장구는 복수응답을 하게 하여 보호장구에 대해 환자인지정도를 파악하였다. 손 씻기에 대한 감염인지정도와 치과감염관리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감염관리인지의 전체 신뢰도는 .538이었다.

2.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 자료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를 이용하였고 통계처리는 일반적인 특성,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정보 경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 감염방지에 대한 보호장구 인지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손씻기에 대한 감염인지도는 일표본t-test를 실시하여 점수화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과감염 인지도는 2집단 평균비교는 독립t-test를 실시하였고, 3집단 이상의 평균비교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3집단이상에서 평균차이가 유의한 경우 사후검증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N(%)	
구분		N	%
성별	남	77	33.0
	여	156	67.0
연령	25세이하	51	21.8
	26~30세	37	15.8
	31~35세	32	13.7
	36~40세	12	5.2
	41~45세	32	13.8
	46~50세	55	23.6
	51세 이상	14	5.9
학력	초등졸	9	3.9
	중졸	124	53.2
	고졸 이상	100	42.9
결혼유무	미혼	110	47.2
	기혼	123	52.8
월 소득	50 만원 이상	18	7.7
	100 만원 이상	89	38.2
	200 만원 이상	71	30.5
	300 만원 이상	31	13.3
	기타(소득없음)	24	10.3
치과치료방문	치과의원	125	53.6
	치과병원	108	46.4
치과방문 목적	정기검진	37	16.0
	동통치료	100	42.9
	발치	22	9.3
	보철치료	28	12.0
	치주치료 및 스켈링	47	20.2
계		233	100.0

Duncan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3. 연구성적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1〉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여성이 67%로 남성 33%에 비해 많았으며 연령은 46~50세가 23.6%, 25세 미만이 21.8%순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53.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42.9%, 초등학교 졸업 이하 3.9%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52.8%, 미혼이 47.2%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100만원 이상이 38.2%로 가장 많았다. 치아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곳은 치과의원이 53.6%로 치과병원

46.4%보다 많았다. 치과방문 목적은 동통치료목적인 경우 42.9%, 치주치료 및 스켈링 20.2%, 정기검진이 16.0%, 보철치료 12.0%, 발치 9.3%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치료목적으로 치과를 내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정보 경험

〈표 2〉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치과감염에 대한 정보경험은 경험한 적이 있다가 74.7%로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정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치과감염관리 정보를 경험한 후 치과내원 시 달라진 점에 대한 응답이 '기구의 소독상태를 예전보다 유심히 살핀다'가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과를 선택할 시 감염관리를 고려

표 2.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정보 경험

단위: N(%)

특성		N	%
치과감염에 대한 정보 경험유무	있다	174	74.7
	없다	59	25.3
합계		200	100.0
정보를 접한 후 치과 내원 시 달라진 점 ¹⁾	기구의 소독상태를 예전보다 유심히 살핀다.	81	46.6
	치과를 선택할 시 감염관리를 고려한다.	42	24.1
	의료진의 보호장구 착용을 유심히 살핀다.	17	9.8
	폐기물관리를 살핀다.	6	3.4
	병원의 실내 환경 정리 정돈상태를 살핀다.	28	16.1
계		174	100.0

¹⁾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정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 대한 빈도

표 3.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

단위: N(%)

구분		N	%
감염관리의 책임 소재 대상	치과의사	108	46.4
	치과위생사 및 조무사	83	35.6
	치과코디네이터	19	8.1
	잘 모름	23	9.9
치과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목적	치과 의료진과 환자보호	181	77.7
	환자보호	22	9.4
	치과 의료진 보호	30	12.9
마스크는 매 환자마다 일회용사용 해야 함	그렇다	125	53.6
	보통이다	61	26.2
	그렇지 않다	47	20.2
치과 의료진의 진료시작 전 손 씻기 여부 확인	한다	65	27.9
	안 한다	168	72.1
냉난방기 및 가습기는 치과감염에 영향을 미침	그렇다	86	36.9
	보통이다	78	33.5
	그렇지 않다	69	29.6
계		233	100.0

한다'가 24.1%, '병원의 실내 환경 정리 정돈 상태를 살핀다' 16.1%, '의료진의 보호장구 착용을 유심히 살핀다' 9.8%, '폐기물관리를 살핀다' 3.4%순으로 조사되었다.

3.3.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

〈표 3〉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감염관리의 책임 소재 대상'에 대해 응답한 결과 치과의사여야 한다가 46.4%, 치과위생사 및 조무사 35.6%, 잘 모름이 9.9%, 치과코디네이터 8.1%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료진이 보호장구를 왜 착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치과 의료진과 환자보호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7.7%, 치과 의료진 보호가 12.9%, 환자보호가 9.4%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진의 보호장구 착용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스크는 매 환자마다 일회용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렇다' 53.6%, '보통이다' 26.2%, '그렇지 않다'가 20.2%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시작 전 치과 의료진의 손 씻기 여부를 확인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다'가 72.1%, '확인한다'가 27.9%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치과의료진의 손

표 4. 손씻기에 대한 감염인지

단위: M±SD, N(233)

구분	Mean	SD
치료용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매환자마다 손씻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16	.73
새로운 장갑을 착용할 때마다 매번 손을 씻어야 한다.	3.95	.85
진찰용 장갑은 매 환자마다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4.27	.70
병원에서는 수건보다 일회용 핸드타월을 사용해야 한다.	4.08	.82
손 세척 시 일반비누 보다 항균비누를 사용해야 한다.	4.09	.87
계	4.11	.58

※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감염인지도가 높음을 나타냄

표 5. 감염방지에 대한 보호장구 인지도

단위: N(%)

구분	치과의료진 보호		환자보호	
	N	%	N	%
Mask	192	82.4	84	36.1
Glove	101	64.8	100	43.1
Goggle	98	42.1	22	9.6
One time cloth	34	14.7	69	29.9
Disposable Hoods	25	10.7	48	20.7
계	233	100.0	233	100.0

보호장구에 대해 다중응답처리

씻기 여부는 확인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냉난방기 및 가습기는 치과감염에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36.9%, ‘보통이다’ 33.5%, ‘그렇지 않다’ 29.6% 순으로 조사되었다.

3.4. 손 씻기에 대한 감염인지정도

〈표 4〉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손 씻기에 대한 감염 인지는 ‘진찰용 장갑은 매 환자마다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가 평점 4.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새로운 장갑을 착용할 때마다 매번 손을 씻어야 한다’가 3.9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손 씻기의 전체적인 인지도는 4.11점으로 조사대상자의 손 씻기에 대한 감염인지는 높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3.5. 감염방지에 대한 보호장구 인지도

〈표 5〉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감염방지에 대한 보호장구의 인지도에서 치과의료진의 보호를 위한 보호장구의 인지는 마스크가 82.4%로 가장 높았고 일회용 두건이 10.7%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치과 환자의 보호를 위한 보호장구의 인지는 장갑이 43.1%로 가

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보안경이 9.6%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3.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감염인지도

〈표 6〉에 의하면 치과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지도는 성별에서는 여성이 3.88점으로 남성의 3.7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6~30세가 4.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세 이상이 3.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 이상이 4.06점, 중학교졸업이 3.78점, 초졸이 3.36점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감염에 대한 인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3.99점으로 기혼의 3.78점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치과방문목적에서는 정기검진목적으로 치과를 내원하는 대상자가 4.04점으로 인지가 높았고 단지 발치를 목적으로 치과를 내원하는 대상자가 3.45점으로 인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표 6.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과감염인지도

단위: M± SD

	구분	N	M± SD	P
성별	남	77	3.79± .62	.797
	여	156	3.88± .51	
연령	25세 이하	51	3.97± .57	.140
	26~30세	37	4.06± .58	
	31~35세	32	3.87± .59	
	36~40세	12	3.85± .39	
	41~45세	32	3.78± .41	
	46~50세	55	3.81± .54	
	51세이상	14	3.65± .56	
학력	초졸	9	3.36± .64 ^b	.001 ^{***}
	중졸	124	3.78± .48 ^a	
	고졸 이상	100	4.06± .56 ^a	
결혼유무	미혼	110	3.99± .56	.004 ^{**}
	기혼	123	3.78± .52	
월 소득	50 만원 이상	18	3.69± .44	.054
	100 만원 이상	89	3.93± .55	
	200 만원 이상	71	3.78± .51	
	300 만원 이상	31	3.91± .62	
	기타(소득없음)	24	4.11± .54	
치과치료방문	치과의원	125	3.87± .54	.298
	치과병원	101	3.88± .54	
동통치료	정기검진	37	4.04± .51 ^a	.002 ^{**}
	동통치료	100	3.77± .52 ^{ab}	
	발치	21	3.45± .64 ^b	
	보철치료	28	3.90± .56 ^a	
	치주치료 및 스케일링	47	4.02± .51 ^a	

** p<.01 *** p<.001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감염인지도가 높음을 나타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과감염인지정도 차이검증을 위해 t-test(2집단), 분산분석(3집단)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은 Duncan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영문첨자로 표시하였다.(a : 가장 높은 점수, b : 가장 낮은 점수, ab : a와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고 b와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음)

4. 총괄 및 고안

치과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실제로 치과 의료 현장에서 혈인성 병원균이나 다른 감염원이 전파될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치과병(의)원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방문할 것이다. 그러므로 치과 종사자는 감염관리 실천에 보다 더 심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교차감염의 수준을 낮추고 감염방지를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치과종사자는 감염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¹⁰⁾.

이에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이 치과감염관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질 높고 신뢰성 있는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치과감염관리에 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접한 후 치과내원 시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46.6%가 기구소독 상태를 예전보다 유심히 살핀다고 응답하여 임⁹⁾의 조사에서 54.3%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정보를 접한 후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자기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¹¹⁾의 연구에서는 2006년 PD수첩 방영 이후 조사대상자의 42.3%가 감염 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치과 종사자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노력은 진 행되고 있다고 사료되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이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감염 관리의 책임소재에 관한 환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치과 의사가 46.4%, 치과위생사 및 조무사 35.6%로 치과 의사와 스텝들로 골고루 응답한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는 감염관리는 특정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 이 아니라 치과의료진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치과의 감염관리에 있어 치과위생사의 인식이나 실천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치과의원의 운영 자인 치과의사는 감염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그 들의 인식은 그 외의 치과의료진에게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감염관리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주기적으로 그 실천을 점검해야 한다⁹⁾. 황¹²⁾과 박¹³⁾의 연구에 의하면 치과의료진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환자들을 위해 치과의료진이 감염관리에 대한 표준화 된 인식 및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치과의료진이 보호장구를 왜 착용해야 하 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치과의료진과 환자보호를 위 해서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7.7%로 나타나 Kearns¹⁴⁾의 환자와 치과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 한 94%보다는 낮지만 임⁹⁾의 연구에서 77.6%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도 전반적으 로 보호장구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⁹⁾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장구에 대한 환자의 인식은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치과의료진 들은 앞으로 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데 세심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료시작 전 치과 의료진의 손 씻기 여부를 확인하 는가'에 대해서는 27.9%만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⁹⁾의 41.7%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치과진료는 특성상 치과의료진의 손이 지속적으로 환자의 타액과 혈액 등으로 오염 된다¹⁵⁾. 손을 씻는 것은 감염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이며 또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조 등¹⁶⁾의 연구 결과에서는 진료전 손 세척 시 치과의사 82.2%, 치과위생사 67.8%로 나타났고 이 등¹⁷⁾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70.2%가 진료 전 항 상 손 세척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일부 치과 의료진 이 손 씻기에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치 과 의료진은 손 씻기에 소홀히 하고 있으나 임⁹⁾의 연구 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의 료진의 손 씻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을 볼 때 치 과 의료진은 진료전후에 철저한 손 씻기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손 씻기에 대한 감염관리 인지의 전체 적인 환자들의 인식은 4.11점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볼 때 손 씻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환자 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치과의료 진은 손 씻기에 대해 철저한 실천과 동시에 손 소독 시 세부적으로 사용되는 항균비누, 일회용타월 등 활용도 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과감염인지도에서는 여성 이 남성보다 치과감염관리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최¹⁸⁾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남자 보다 여자가 더 청결한 병원을 중요시하다보니 여성들 의 감염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져 나타난 결과라 사 료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초졸보다 고졸 이상이 감염관 리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⁹⁾의 학력이 낮을수록 감염에 대한 인지가 낮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또한 정기검진으로 치과를 내원한다는 조사대상자 가 1회적인 치료인 발치로 치과를 내원한다는 조사대 상자보다 감염관리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 기검진으로 인해 치과를 많이 내원함으로 인하여 치과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전체적인 결과를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치과감염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에 치과감염관리는 대 중들의 관심사 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치과의료진의 인식과 실천 또한 빠르게 변화해야 할 것 이다. 임⁹⁾은 치과의 감염관리는 치과선택 시 대부분의 환자에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치과의료진은 감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감염방지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들을 설정하 여 환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치과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실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환자들이 내원하는 치과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정한 시점에서 조사한 단면연구이므로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선행논문이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고찰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본 조사는 치과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의 치과감염관리 인식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감염관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치과병(의)원에 진료실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 23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인 치과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곳은 치과의원 53.6%로 치과병원 46.4% 보다 많았으며 치과방문 목적은 동통치료를 목적인 경우 42.9%, 치주 및 스케일링 경우는 20.2%, 정기검진인 경우 16.0%, 보철 치료 12.0%, 발치인 경우 9.3%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치과감염에 대한 정보경험은 경험한 적이 있다가 74.7%로 나타났고 경험한 이후 치과내원 시 행동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 '기구의 소독상태를 예전보다 유심히 살핀다'가 46.6%로 가장 많았다.
3. 조사대상자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감염관리의 책임 소재 대상이 치과의사여야 한다가 46.4%, 치과위생사 및 조무사가 35.6%로 나타났으며, 치과 의료진의 보호 장구 착용 목적이 치과 의료진과 환자보호가 77.7%, 치과 의료진 보호 12.9%, 환자보호 9.4%순으로 나타났다. 치과 의료진의 진료시작 전 손 씻기 여부 확인에서는 '안 한다'가 72.1%, '한다'가 27.9%로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의 손 씻기에 대한 감염인지는 '진찰용 장갑은 매 환자마다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가 평점 4.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새로운 장갑을 착용할 때마다 매번 손을 씻어야 한다'가 3.9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손 씻기의 전체적인 인지도는 4.11점으로 조사대상자의 손 씻기에 대한 감염인지는 높게 나타났다.

5. 치과의료진의 보호를 위한 보호장구의 인지는 마스크가 82.4%로 가장 높았고 일회용 두건이 10.7%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치과 환자의 보호를 위한 보호장구의 인지는 장갑이 43.1%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보안경이 9.6%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6. 치과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지도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3.88점으로 남성의 3.7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6~30세가 4.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세 이상이 3.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감염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3.99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1$), 치과방문목적에서는 정기검진목적으로 치과를 내원하는 대상자가 4.04점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치과감염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치과감염관리는 대중들의 관심분야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치과의료진의 인식과 실천 또한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감염관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감염방지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들을 설정하여 환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치과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실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환자들이 내원하는 치과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정순. 치과병의원을 통한 전파위험 전염증.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94;32:422-426.
2. 김각균. 치과진료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선언.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94;32:398-399.
3. Hardie J. Handpiece sterilization. The Debate Continuous. J Can Dent Assoc 1993;59: 355-362.
4. 송경희. 치과 개원가의 멸균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직할시를 중심으로). 대구보건대학 자연과학 1992;13:1271-1272.
5. 최금숙. 대구지역 치과종사자들의 기초 방호법 시행 정도와 B형 간염 감염률에 대한 조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1-4, 17, 20-21.
6. 이영애, 조민정, 배지영, 박현숙. 치과진료실에서의 직종별 감염방지 실천 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7;7(4):263-269.
7. MBC PD수첩. 치과의 위험한 비밀. 2006.
8. 민혜진. 외래환자의 병원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 임현경. 치과감염관리에 관한 환자들의 인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0. King Tracy B, Kathleem B Muzzin. A national survey of dental hygienist's infection control attitudes practices. 2005;79(2):1-13.
11. 김희정. 대구지역 치과위생가의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 이행실태.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2. 황제희.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인식 및 이행실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3. 박영남. 치과종사자의 교차 감염방지와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4. Kearns H.P.O., F.J.T Burke. Patient attitudes to glove use by orthodontists. British Journal of Orthodontics. 1998;25:127-129.
15. 오세광.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실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95;33(3):184-187.
16. 조운정, 윤석준, 안형식, 김순덕, 박형근.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 QA 학회지 2003;10(2):190-204.
17. 이영애, 박현숙, 배지영, 조민정. 치과의료종사자들이 감염방지에 대한 인식. 치위생과학회 2007;7(2):263-269.
18. 최혜정.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의료서비스에 관한 환자의 만족 요인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